

## ‘언·수·외’ 1~3등급 20위내 공립고 全無

**긴급점검**  
**광주고교 학력격차**  
**公低私高 대책없나**

광주지역 고교의 ‘공저사고(公低私高·공립고 학력이 낮고, 사립고는 높음)’ 현상이 심각하다. 특히 수능 성적표에서 더욱 확연해 사립 출림이 커지고 있다. 교육당국은 대안으로 ‘종자론’을 제시하며, 고교 배정 때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강제 분산시키겠다고 나섰지만 반발도 거세다. 광주교육의 고질병인 공저사고 현상을 긴급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 수능성적으로 본 격차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드러난 광주지역 고교의 ‘공저사고(公低私高)’ 현상(광주일보 5일자 6면)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에서 또 다시 확인됐다. 일반고 상위 20개 고교 중 공립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상위 20곳 중 공립 한 곳도 없어 = 7일 교육업체 ‘하늘교육’에 따르면 2012학년도 수능 언어·수학·외국어 영역의 등급을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48개 일반고의 최상위권인 1~2등급 상위 20개 고교에 국·공립은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전남대 진학이 가능한 3등급에도 공립은 전무했다. 대광여고가 1~3등급 비율이 32.9%로, 성적이 가장 우수했다. 이어 대동고(32.2%), 광덕고(30.3%), 대성여고(29.7%), 송덕고(29.2%), 금호고(28.3%), 동아여고(27.7%), 고

### 30위권에 겨우 3곳...11곳은 최하위권 공교육 불신속 ‘사립 쏠림’ 심화 부채질

려고(27.6%), 설월여고(25.8%), 살레시오고(25.5%) 순으로 10위권에 단 한 곳도 없었다.  
공립에서는 문정여고·상일여고·종암고 등 3곳이 겨우 30위권에 들었다. 나머지 국·공립 11곳은 30위권 밖의 최하위권에 처했다.  
상위권에는 남고가 11곳, 여고가 7곳, 공학 2곳으로 남고가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남구가 9곳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북구 6, 서구 3, 광산 2곳이었다.  
▷사립의 노력·노하우 받아들여야 = ‘공저사고’ 현상이 지표로 공개되면서 지역 교육계의 반응은 뜨거웠다. 광주시교육청의 공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학부모 김모(여·45) 씨는 “정치·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광주가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다. 그게 광주의 미래다”며 “학부모들이 사립으로 쏠리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초등학교 때 열린 수업을 한다며 좋아하던 얼마도 자녀가 중학교에 가면 ‘이건 아닌데’ 하며 가우뚱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왜 공부만 안 시키느냐’며 강한 불만을 표출한다”고 학부모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공립학교의 각성도 촉구했다. 사립고 한 교사는 “자율형 공립고

■ 광주 고교 2012학년도 수능 언어·수학·외국어 영역 평균 3등급 이내 인원 비율 상위 20위 (일반고 재학생 기준) 단위: %

순위	소재지	학교명	설립유형	성별	수험생수	1등급이내	2등급이내	3등급이내
1	남구	대광여고	사립	여자	359	1.1	11.4	32.9
2	서구	대동고	"	남자	342	2.6	14.6	32.2
3	서구	광덕고	"	"	343	2.3	11.1	30.3
4	남구	대성여고	"	여자	441	1.6	11.1	29.7
5	광산구	송덕고	"	공학	373	1.1	12.1	29.2
6	북구	금호고	"	남자	300	2.0	12.7	28.3
7	남구	동아여고	"	여자	393	1.0	9.9	27.7
8	북구	고려고	"	남자	366	1.9	10.9	27.6
9	남구	설월여고	"	여자	376	1.1	8.0	25.8
10	북구	살레시오고	"	남자	333	1.2	10.5	25.5
11	남구	동성고	"	"	337	0.9	8.9	25.5
12	서구	서석고	"	"	320	0.9	8.4	24.4
13	남구	문성고	"	"	341	1.2	8.2	24.3
14	북구	동신여고	"	여자	396	0.0	8.8	23.5
15	남구	석산고	"	남자	340	1.2	9.4	23.2
16	광산구	진흥고	"	"	334	0.9	7.8	21.3
17	남구	인성고	"	"	379	2.4	9.8	20.8
18	북구	서강고	"	공학	403	0.5	6.9	20.1
19	남구	수피아여고	"	여자	423	0.5	7.3	19.9
20	북구	중앙여고	"	"	385	0.8	7.5	19.7
총계					15923	0.8	6.8	18.5

(자료:하늘교육)

인 공저사고와 공저사고의 경우 선발권이 학교에 있어 좋은 학생들을 많이 뽑았다. 하지만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뒤쳐진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그만큼 학습지도가 소홀했던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사립재단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실력향상을 위해 고생한 사립학교와 교사들에 대해 교육당국은 서열화 조정, 비교육적 처사라고 매도하고 있다”며 “학교의 자율권과 학생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등 공교육 불신과 기대감을 상실하게 한 교육당국이 오히려 학부모들을 학원과 과외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벚꽃이 아닙니다”...무등산 4월 설화 4월 무등산에 봄을 시샘하는 눈이 내렸다. 7일 새벽 무등산 정상에 최저기온이 영하 3.1도까지 내려가면서 1cm가량의 춘설(春雪)이 쌓였다. 등산객들이 입석대 아래 펼쳐진, 때마침 설국(雪國)의 비경을 만끽하고 있다. 4월에 눈이 내린 것은 2009년 4월 28일 이후 4년 만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광주고검장 박성재 광주지검장 신경식

### 검찰 고위간부 인사

오는 10일자로 단행된 법무부의 검찰 고위 간부인사에서 광주고검장에 박성재(50·사법연수원 17기) 참원지검장, 광주지검장에 신경식(49·17기) 청주지검장이 각각 임명됐다.  
검찰 내 호남지역 대표주자인 김현웅(54·16기) 광주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승진발령됐으며, 문무일(52·

18기) 광주고검장 직무대리는 법무부 범죄예방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발표한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 조영권(55·사법연수원 16기) 대구지검장, 대검 차장에 김태기(55·15기) 전 법무부 차관, 법무부 차관에 국민수(50·16기) 법무부 검찰국장을 각각 임명했다.  
승진 발령된 박 광주고검장은 부드



박성재 고검장 신경식 지검장

럽고 원만한 성격으로 친화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가조작과 비자금 등 기업 수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경북 청도 출신으로 대구고교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대검 검찰연구관·감찰2과장, 대구지검 검찰연구관, 서울 동부지검 차장검사, 서울고검 공판부장,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신 광주지검장은 책임감이 강하고 업무처리가 치밀하며 기획·창의력이 뛰어난 인물로 알려졌다. 서울 중앙지검 제2지검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를 지휘했다. 서울 출신인 그는 고려고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광주지검 부부장, 대검 미래기획단장,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검찰총장 유력 후보였던 순천출신 소병철(55·15기) 대구고검장은 법무연수원장에, 김주현(52·18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에 각각 보임됐다. 다만 고검장급인 중앙수사부장은 중수부 해체를 앞두고 있어 임명하지 않았다.  
또 서울고검장에 임명된 대검 공안부장(57·16기), 대전고검장에 김경수 대검 중수부장(57·17기), 대구고검장에 이득홍(51·16기) 부산지검장 등이 각각 승진했다.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옮긴 이창재(48·1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채동욱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아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 관심을 끌었던 검사장 승진인사에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 기용된 봉욱(48·19기) 법무부 인권국장 등 사법연수원 19기 6명과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기용된 신유철(48·20기) 순천지청장 등 20기 2명이 이름을 올렸다.  
/윤현석기자 chadold@

**61** 광주일보 창사61주년 since 1952 **화간의 해**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www.pinkcampaign.com

## 가슴으로 뛰는 모두의 축제

# 2013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일시** 2013년 6월 2일(일) 오전 8:30  
**장소** 광주 상무시민공원  
**종목** 10Km / 5Km  
**참가비** 1만원, 전액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됩니다.  
**참가신청** 검색창에 “핑크리본 사랑마라톤”을 입력하세요.  
**참가문의**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사무국 1688-9744  
**기념품** 르까프 기능성 티셔츠, 스포츠 양말

주최 | 한국유방건강재단 KOREA BREAST CANCER FOUNDATION 주관 | AMORE PACIFIC  
후원 | 보건복지부 · 한국유방암학회 협찬 | HERA · 케토름 · 르까프